

離別.

눈이오다, 물이되는날.

재스빛하늘에 또뿌연내, 그리고,

크다란 機關車는 빼—엑— 울며,

쭉그만, 가슴은, 울렁거린다,

×

리별이 너무재빠르다, 안타깝게도,

사랑하는 사람을,

일터에서 만나자하고—— .

더운손의맛과, 구슬눈물이마르기전

기차는 꼬리를 산굽으로돌렸다,

一九三六年三月二十日 永鉉君을

이별

눈이 오다, 물이 되는 날

젋빛 하늘에 또 뿌연 내, 그리고,

커다란 기관차는 빼—엑—울며,

쭉그만, 가슴은, 울렁거린다.

×

이별이 너무 재빠르다, 안타깝게도,

사랑하는 사람을,

일터에서 만나자 하고——,

더운 손의 맛과, 구슬 눈물이 마르기 전

기차는 꼬리를 산굽으로 돌렸다.

1936. 3. 20.